

강원도 여성·가족·복지정책 라운드테이블 자료집(Ⅱ)

강원여성생활사 및 여성구술생애사 발굴·발간 방안 라운드테이블

강원도여성생활사 및 여성구술생애사 발굴·발간 방안 라운드테이블

강원여성생활사를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범위, 활용안
논의 및 강원여성구술생애사 발간의 구체적 방안모색

I 개요

- 일 시 : 2017년 10월 24일(화) 14:00 ~ 16:00
- 장 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층 회의실
- 참 여 : 20명(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공무원)
- 주요내용 : 여성구술사 발굴 및 발간 사례, 강원도여성구술생애사
발간방향 등

II 세부내용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3:30	14:00	◦ 등 록
14:00	14:05	◦ 개회 및 인사말 (서영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14:05	14:25	◦ [발표1] 대구 여성생애구술사의 특징 및 발전계획 (최세정. 대구여성가족재단 교육사업팀장)
14:25	14:45	◦ [발표2] 전남여성구술사 발간사업의 특성과 발전계획 (이진순 전남여성플라자 교육사업팀장)
14:45	15:05	◦ [발표3] 강원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들 (김영희 강원도민일보 기자)
15:05	15:55	◦ 질의 응답 및 토론 고창영(강원도문화운동협의회 사무총장) 박기남(강원도 여성특보) 박미현(강원도민일보 이사)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정선(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호(한동해본부 주무관) 이하늘(강원일보 기자)
15:55	16:00	◦ 폐 회

대구 여성생애구술사의 특징 및 발전 계획

최세정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 교육사업팀장)



대구 여성생애구술사의 특징 및 발전 계획

최세정(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I. 머리말

여성의 기억과 역사가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인 기록으로 자리 잡은 것은 불과 100년도 되지 않는다. 여성의 목소리와 기억은 모두 휘발되고 대부분의 역사는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여성사는 주로 훌륭한 가문의 덕을 갖춘 여성을 묘사하는 위인 서술 형식의 역사 또는 전기류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서술은 여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게 아니라 남성 중심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는데 그쳤다(정현백, 2007: 20)고 평가된다.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여성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여성사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져갔다. 역사 속 기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주체로서 여성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여성 연구에 있어 가장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사료의 부족과 왜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편지, 일기, 자서전, 구술사, 미술작품 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의 여성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구술사 연구는 ‘기록이 없는 이들’의 기록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문헌 기록만으로 규명될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구술을 통해 기록하고 기억해왔다.

한국에서 구술사 연구는 초기부터 ‘밑으로부터’, ‘기록없는 이들’의 기록을 만들기 위한 사회운동과 연관되어 급속하게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윤택림, 2010: 23). 제주 4·3항쟁, 일본군 위안부, 5·18 광주항쟁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문헌기록으로만 온전한 모습을 알기 힘든 역사적 사건의 경우 목격담 등의 구술을 통해 역사의 기록의 빈 자리를 채워나가는 작업이 계속되어왔다. 특히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증언 채록 작업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에 저항하고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성운동과 여성학을 연

결시키는 주요한 고리로 작동했다(이나영, 2012: 193).

여성주의 구술사는 “실제적인 생애 경험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여성이 처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젠더 주체로서의 위치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례, 2002: 34). 여성사는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작용한 여성성을 찾아내어 서술하는 분야이고 지역사는 특정 지역에서 전개되는 역사 발전과정에 대한 탐구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 여성사는 인간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지역여성사를 재확인하려는 동시에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의 주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작업이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은 2014년 이래로 매년 ‘대구여성생애구술사’를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여성의 생애를 다룬 구술사를 지속적으로 펴냄으로써 기록되지 않았던 여성의 삶은 물론이고 그를 둘러싼 사회·문화·환경적 맥락, 그리고 도시의 풍경까지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II. 대구여성생애사의 특징

1. 키(Key)워드 중심의 구술자 선정

본 재단은 2014년 처음 대구여성구술생애사를 진행함에 앞서 자문회의를 실시했다. 각계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진행된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대구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구술사를 주문했고, 그 방안으로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따라서 대구여성생애구술사는 타 지역과는 달리 매년 키워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2014년 ‘섬유’, 2015년 ‘시장’, 2016년 ‘의료’, 2017년 ‘예술’ 분야에서 오래 활동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구술을 진행했다.

구술자를 선정할 때는 광범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술자를 선정하거나 각 분야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았다.

2014년 가장 먼저 ‘섬유’를 키워드로 삼아 구술자를 선정하였다. 섬유산업은 대구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이었고 대구가 ‘섬유도시’로 오랫동안 명명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 섬유노동에는 섬유노동의 특성상 고령 여성이 현재 종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과거 경험을 중심으로 구술자를 찾았

다. 인적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섬유 산업이 활성화되었던 서구를 중심으로 경로당, 시장 등을 찾아다니며 구술자를 물색하였고 1차 후보군으로 24명의 후보를 선정하였다. 이후 수 차례 회의를 거쳐 5명으로 압축하여 구술자를 확정하였다.

<표 1> 대구여성구술생애사 ‘섬유’

(기준 : 2014년)

번호	이름	나이	주요 경력
1	정말분	82	원잠종을 육성하던 칠성산업사 맡며느리로, 섬유산업이 한창 번창하던 시절 회고
2	김상태	76	식모살이로 시작, 직조공장 여공,통경사 숙련노동자로 대구 면방직공장에서 30여년 노동
3	류병선	74	남편과 함께 1960년 영도섬유 창립, 현재 영도벨벳 대표이사로 활동
4	남두연	60	14살 때 처음 제직공장에서 일을 시작,28년간 섬유노동자로 근무
5	여계연	75	원단과 포목시판매 시장으로 유명한 서문시장에서 원단덤핑 장사 등 30년간 원단장사

출처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 섬유 그리고 여성』 2014

2014년 ‘섬유’ 편에서는 특히 대구 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기억을 또렷하게 증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대기 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정말분을 만나 구술을 받은 것이 큰 성과로 남는다. 정말분은 대구경북 지역 건축물 산업의 핵심 원료인 원잠종을 육성해 경북도청으로 납품하던 칠성산업사의 맡며느리로, 해방 무렵 시아버지가 일본총독부 직원으로부터 잠종 사업을 인수하게 된 상황과 일제 강점기와 해방, 10월 항쟁 6·25 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체험한 개인의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1930년대 일본인이 경영하던 미나카이 백화점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시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일본총독부 직원이 건립한 집의 원형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향후 대구 근대기 건축물 연구에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2015년은 ‘시장’ 을 주제로 여성 구술자의 삶을 담아냈다. 대구에는 서문시장, 칠성시장과 같이 대규모 시장이 지금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밖에도

교동시장, 번개시장 등은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중간 규모의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남문시장, 방촌시장 등은 소규모 시장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을 주제로 한 구술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구 지역 시장에 대해 우선 파악하고, 구술자를 찾아낼 시장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시장의 주력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 위주로 여성 상인을 발굴하였다. 어려운 점은 시장 판매 노동의 특성상 이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곳이 많아서 고령의 여성 상인을 찾기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또한 여성 상인들은 생애사 전반에 걸쳐 힘겨운 사연이 적지 않아, 이러한 사연을 풀어낼 구술자를 찾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시장’ 상인은 의외로 구술자를 찾아내고 동의를 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표 2〉 대구여성생애구술사 ‘시장’

(기준 : 2015년)

번호	이름	나이	시장	주요 경력
1	곽호숙	76	교동시장	함경남도에서 출생, 월남하여 대구 정착. 남편 사망으로 미군부대 미제물품 판매 시작하여 현재까지 교동시장에서 수입품상 운영
2	이숙환	71	남문시장	27세부터 서문시장 메리야스 장사 시작으로 서울, 전라도 등지에서 각종 옷장사. 1980년부터 현재까지 남문시장 건어물 장사
3	배청자	72	방촌시장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건너옴. 1973년 빌린 돈으로 채소 장사 시작 후 현재 방촌시장 야채장사
4	박봉순	70	번개시장	1978년 번개시장 ‘다라이장사’로 장사 시작하여 현재 고추방앗간 운영
5	이경임	70	서문시장	서울 출생으로 결혼하여 대구에 정착. 서문시장 건어물장사를 하던 시부모의 대를 이어 1980년부터 현재까지 서문시장에서 장사
6	허경옥	77	서문시장	1968년 염매시장 메리야스 장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문시장 메리야스 가게 운영
7	최화자	74	칠성시장	1970년부터 현재까지 칠성시장 채소장사 운영. 칠성시장의 변모과정을 상세하게 기억

출처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 시장 여성』 2015

‘대구 시장 여성’ 편에서 여성 상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구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남편의 폭행, 젊은 나이에 겪은 남편의 사망, 자녀의 사고 및 사망 등 여성으로서 겪기 힘든 경험을 구술해주었다. 또 대를 이어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고 있는 이경임, 그리고 70년대부터 40년 이상 칠성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최화자를 통해서 대구 시장의 초창기 모습과 변모 과정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다.

‘대구 의료 여성’은 여성 의료인을 만나는 작업으로, 의료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종사했던 여성들을 찾아 구술을 받았다. 전문 분야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구술자들이 많았다. 각 분야에서 40년 이상 종사하면서 시대적 변천 과정을 잘 구술해주었다.

<표 3> 대구여성생애구술사 ‘의료’

(기준 : 2016년)

번호	이름	나이	주요 경력	면담장소	의료경력	비고	종교
1	박영주	84세	약사	약국	44	현업	-
2	배춘자	73세	약업사	약업사	41	현업	기독교
3	배학분	82세	의사	의원	56	현업	기독교
4	이옥기	78세	조산사	자택	41	퇴임	기독교
5	전쌍봉	81세	보건직공무원	자택	33	퇴임	-
6	정동옥	81세	파독간호사	자택	17	퇴임	기독교
7	엠마 프라이싱거	85세	나환자진료 간호사	사무실	35	현업	천주교

출처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 의료 여성』 2016

‘대구 의료 여성’의 구술자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상세한 기억력으로 구술해주었다. 특히 엠마 프라이싱거 구술자는 오스트리아인으로, 65년 전 대구로 와서 평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살았다.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생애사를 정리한 자료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2. 전문 여성인을 통한 시대 풍경의 재구성

지금까지 구술을 받은 여성들이 모두 특정 분야에 종사했던 여성인 만큼 전문 여성인을 통해 시대 풍경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술들을 종종 만나볼 수 있다.

‘대구 섬유 그리고 여성’ 편에서 남두연 구술자는 기술자로 일했지만 섬유산업이 한창 활황기였던 1980년대, 90년대에도 현장에서 경기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사장들은 항상 경기 없다고 말했고, 끄끄 앓는” 상황에서 경기를 실감할 수 없었다. 2년 동안 월급을 안올려 준 적도 있고, 월급을 인상해달라고 몇 달 요구하면 조금 올려주는 정도였다.

남두연 구술자는 특히 교대 근무를 너무나 힘들었다고 회상한다. 야간 근무 때문에 결국 섬유 공장을 그만둘 만큼 ‘지긋지긋’ 했다고 한다.

“저녁에도 우리는 밤새도록 자는 게 없다. 한 세 시간 자면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결혼하고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는 2교대를 8년 했잖아요. 몸서리나게 했다. 협성섬유에서 8년간 2교대를 했는데, 집 얻는데 보탬지. 야간 13시간 일하는 거는 말로 표현을 못한다. 도지 얻고난 뒤에 3교대로 옮겼어요. 야간을 너무 하기 싫어서. 많이 피곤했죠. 야간하고 일요일에 가도 피곤하니까 눈을 바로 못 뜨겠드라. 그게 공장 섬유 손 놓고 이 일을 하는데도 4년까지 그럴습디다.”

정말분 구술자의 시아버지 노현은 1945년 봄 해방 직전에 잠종사업을 인수받는다. 이 과정에 대한 정말분의 회상이 흥미롭다. 1945년 봄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시아버지는 조선으로 돌아오고, 또 조선에서 잠종사업을 하던 조선총독부 직원 가가미는 서둘러 사업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떠난 것을 보면, 해방 직후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정보에 밝은 사람들은 이미 해방의 낯새를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제 때 일본사람이 이 여기서 잠종을 했어요. (우리 시집은 일본에서) 나와서 대봉동에 집을 사서 거처했답디다. 그러다가 여기를 샀지예. (시아버지는) 일본에서 고물상 하셔서 돈 좀 버셨고, 그래서 이 집하고 공장 터하고 뽕밭하고를 일본인한테 인수받게 됐지요. 뽕밭도 있었죠. (중략) 1945년 3월에 사서 인수

를 한거지. 그때는 경상북도에서는 잠종 사업하는 데가 세 군데 밖엔 없었어요. 대봉동 ‘가타쿠라’하고, 우리하고, 하나는 동인동에 있는 거 하고. 동인동 쪽에 길 건너가면 그게 다 뽕밭이었어.”

정말분 구술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집을 며느리인 본인 명의로 해주면서, 유언으로 ‘이 집을 처분하지 말아라’고 했고, 그 유지를 받들어 일본식 가옥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 정말분의 집은 2층 구조로, 2층에는 신사를 두는 곳과 다다미, 벽장 등 건축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세밀한 창살, 다다미 바닥 등은 마치 일본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1층 마당 역시 일본식 정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일부만 살기 편하게 개조해 80여년 동안 살고 있다.

‘대구 의료 여성’ 편에서 의사, 약사, 보건직 공무원 등 의료 전문 종사자들의 구술을 통해서 대구 의료계의 1960-70년대 풍경을 재구성해서 살펴볼 수 있다.

대구에서 선교사들이 선교의 도구로 전파한 의료 분야는 대구에도 뿌리를 내렸고, 초기 의료 전문인들의 양성 과정을 도왔다. 이러한 특성상 구술자들은 기독교나 천주교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여성 교육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엠마 프라이싱거 구술자가 대구에 왔던 1960년대에는 의료 시설이 거의 없었다. 한센병 환자는 물론이고 보통 사람들도 찾아갈 마땅한 병의원이 없었다.

“많은 사람 내한테 왔었어. 온 동네 사람이 아프면 왔어. 아 빠는 거까지 뭐든지 다.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병원에 갈 수 없는 사회입니다. 60년도엔 병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해주고(고쳐주고) 돈 안 받고 하니까는. 약은 외국에서 조금씩 받기 때문에, 샘플로 들어가는 거. 있는 약도 조금 있어서 그거 가지고 했었어. 하루 한 100명 봤었어, 만날.”

이옥기 구술자는 1960년 대구간호학교에 1회 입학생이었고, 졸업 후 1965년 대구시 보건직 공무원이 되었다. 중구보건소, 동구보건소에 근무하였는데, 중구보건소에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성병 검사를 주로 많이 했고 동구보건소에서는 가족계획에 주력하여 일하였다. 중구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술은 1960년대 성매매업소의 풍경을 보여주는 한편 국가에서 성매매를 공식화하여 관리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중구보건소 있을 때는 주로 도원동하고 해방촌에 VD검사하러 다녔어요. 매독, 임질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하러 다녔어요. 그 때 자갈마당에 한 600명 있었고, 저기 해방골목에 한 300명 있었어요.”

정동옥 구술자는 1955년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에 입학하여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파독간호사 모집 공고를 보고 1966년 제1기 파독간호사가 되었다.

1999년 의약분업이 되기 한참 전 약국은 ‘동네 사랑방’으로 통했다. 사람들은 약국에서 이웃의 가족 구성, 생활 수준, 집안의 특수 사정 등을 다 고백하였다. 특히 인근의 여학생들은 여성 약사에게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상담하는 상대가 되어주었다.

“여자 약사니까 여학생들이 와서 생리통 같은 거 상담하기도 하고 또 자기 인생 상담, 연애상담도 하고. 엠티를 갔다 오든지 해서 무슨 일이 한 번 있으면 큰 죄의식을 느끼는거라. 그러면 내가 죄의식 느끼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해라고 말해줬어.”

이옥기 구술자는 보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조산사 교육을 받았다. 1975년 대구에 조산원을 개업했다. 하루 평균 5명, 한 달에 150명 정도 아이를 받았다. 2006년 문을 닫을 때까지 약 3만 5천명을 받았다고 한다. 조산사는 산전 진찰부터 아기 낳는 과정, 산후조리까지 일체를 다 책임지고 해주는 역할이다. 1973년 조산소가 의료기관으로 인정되면서 조산원에 분만실을 만들어 아기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979년 공무원보험, 1989년 국민의료보험이 되기 이전에는 돈이 없어 집에서 아기를 낳는 가정도 많았다. 구술자는 “집에서 억지로 애기를 낳으려고 있다가 하혈을 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부르러 오는 기라”라고 구술한다.

“다닐 때마다 무를 하나 넣어서 다녔어. 아 받으러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집이 있어, 그러면 무를 썰어서 기름 부어서 국이라도 한 그릇 끓여주고 와야 해. 또 우유도 가지고 다니고.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먹을 게 없거든.(중략) 택시 기사들이 어디 가다가 배 아프다 하는 산모가 있으면 일로 델꼬 오는기라. 한 집안 40-50명 애기를 다 받기도 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는 후배들이 내가 되는 거 보고 개업도 많이 하고, 산부인과도 생기기 시작했지요.”(대구 여성가족재단, 2016: 173)

하지만 조산사라는 직업은 초창기 이육기 구술자가 경험했던 것에 비해 크게 쇠퇴하였다. 여성 전문직종인 조산사의 쇠퇴는 국민건강보험의 실시 뒤부터 급격하게 진행됐고, 그 근본적 원인은 의료기술의 통제와 그로 인한 조산사의 이중적 지위 때문이다(이임하, 2015: 142).

3. 여성적 경험의 강조

1930년~1940년대 여성은 일제 강점기와 해방, 전쟁 등을 거치며 힘겨운 시기를 살아왔다. 객관적인 조건의 힘듦은 물론이고 여성으로서 매우 척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기였다.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매우 팽만하던 시기였고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과도 같다는 가부장적 정서가 보편화되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여성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여성에 대한 이중적 착취와 편견을 견뎌야 했다. 전문인으로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과 시부모 공양 등 모든 것이 여성의 몫이었던 시기였다.

본 재단은 여성생애구술사를 채록함에 있어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듣고 기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것은 일반 구술사와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대구, 섬유 그리고 여성’ 편에서 남두연 구술자는 실 감는 일로 시작해 곧바로 제직기술을 습득했다. 첫 월급이 3천원 정도 되는 박봉이었지만 남두연 구술자는 “쪼맨한기 돈 번다 카는게 신기하더라고. 쪼맨한기 뭐해가 돈 벌겠나 싶은데” 라고 적은 돈이지만 돈을 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 돈을 혼자 관리하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 섬유 공장에는 기계를 고치는 남자 ‘기사’와 여공들이 함께 근무했다. 여공의 숫자에 비해 기사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고 당시 인기를 독차지했다고 한다. 기사들은 여공들과 연애하며 가끔 ‘양다리’를 걸치긴 했지만, 남두연 구술자는 이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성에 대한 폭력이라기 보다는 젊은 사람들의 연애로 바라보고 있다.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니까 인기는 많아요. 남자들이 보면 이 여자를 사귀고 저 여자를 사귀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남자가 없으니까. 한 번에 두 명 씩

사귀는 것도 많았지.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명성 같은 데는 정말로 여자는 주, 야간 다하면 한 70명되나? 근데 남자는 몇 명 안 되니까. 남자는 기껏 캐봐야 고치는 사람 너댓 명 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 자연히 남자가 인기 좋겠죠?”

한편 의사, 약사, 간호사, 조산사, 공무원 등 구술자들은 전문직 여성이었다. 가계의 주된 소득원이자 가장 역할을 하였지만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은 여성의 중첩된 노동을 당연시 여겼다. 당시 약국, 병원, 조산사 등의 공간은 가정과 일터가 분리되지 않아, 가사노동과 전문 의료 영역의 일이 뒤엉켜 있었다. 따라서 구술자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집과 일터의 특성상 두 영역의 노동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가부장제가 보편화되어 있던 시절 구술자들의 일과 노동, 가정에 대한 구술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가부장제는 ‘가족 내 남성 가장이 다른 가족구성원을 지배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 전반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제도화, 정당화, 영속화하는 지배 원리라고 할 수 있다(김상현, 2001: 10). 가부장제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기 여성 노동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의사인 배학분 구술자는 시아버지가 하던 영광의원을 1963년 물려받아 운영했다. 1층은 병원, 2층은 가정집으로, 시어머니, 시외할머니, 시동생 등을 부양하면서 시누이를 양육하고 모시고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병원 일을 도맡아 했다. 자녀 5남매, 삼촌과 시누 넷을 혼자 뒷바라지했다. 처음에 집안 일을 돕는 사람(식모)이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내보내고, 며느리에게 가사노동을 일임시켰다. 남편은 교수로서 일을 했지만 가정 경제에 관심이 없고 기여가 매우 낮았다. 구술자가 교수인 남편에게 “연탄값하고 쌀값은 당신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춘자 구술자는 건물 1층에서 약업을 운영하고 2층에 신혼집을 차려 살림을 함께 했다. 당연히 약업사의 일과 육아, 집안 살림을 구술자가 도맡아야 했다. 배춘자 구술자는 “우리 주인 그 사람은 복이 많아서 여기 총 관리만 하고 있잖아. 우리 주인보고 이 골목에서 제일 복이 많다고 하잖아.”라고 말했다. 3남매를 키우면서 아이들 잘 때 공부를 하면서 약업을 운영하였다.

박영주 구술자는 약국을 운영하던 당시 약국에 딸린 작은 방에서 살림을 시작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였지만 긴급하게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면 새벽에도 일어나 약을 주곤 했다. 약국에 딸린 작은

방에 살면서 하루 종일 약국을 보고 아이들 키우고 맘며느리로서 제사까지 다 모셔야 했다. 그러다가 의사인 남편이 산부인과를 개업하자 병원 운영을 돕기 위해 아예 약국을 접어야 했다. 약사인 구술자가 남편의 개업으로 인해 본인의 경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편의 병원에서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는 사실은 당시 보편화된 가부장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나는 시집살이도 했지요. 시집살이 하면서 아 키워 가면서 병원 일 거들어 가면서. 약국은 너무 힘들어서 접어 치워버렸다. 남편이 산부인과 개업을 하면서 나도 일을 많이 했지. 어떤 날은 환자 보호자들이 ‘아줌마는 월급 많이 받겠네요. 이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 그러더라고. (중략) 그때는 여자는 일을 같이 안 하면 안 될 때라. 그때는 부인과를 개업하면 여관, 밥, 분만을 다 제공해야 했어요. 산모가 들어왔다고 하면 온 집이 비상이라. 나는 밥 차린다고 비상, 영감은 환자 보는데 비상, 애들은 어시스턴트로 써야 하니까 비상이라. (중략) 통행금지가 있을 때 출혈하는 환자가 있으면 밤에 피를 받으러 가야 돼. 그래서 택시를 잡아타고 혈액병원에서 가지고 와서 넣어 줘야 하는 거라.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 (중략) 환자가 오면 환자 밥해줘야지, 이불 줘야지, 환자한테서 나오는 거 빨래 해줘야지, 또 환자들 상담도 해줘야지. 거기다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박영주 구술자의 경험은 약사라는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남편의 보조역할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보조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현실을 이야기해준다.

보건소에 근무하던 전쌍봉 구술자는 자녀들은 시어머니가 키워주었지만 퇴근 후에는 모든 식사 준비와 빨래, 청소가 본인의 몫이었다. 보건공무원이었던 전쌍봉 구술자는 보건소와 가정이 분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시어머니)가 보건소에까지 업고 와가지고 낮으로 (젓을) 먹이고“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자신의 월급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남편이 지금까지도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후회된다고 하였다.

구술자 전쌍봉은 평생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일하였지만 기본적인 경제권조차 갖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옥기 구술자는 조산사의 특징상 조산원을 별도로 개원했지만 수시로 밤에 집의 벨을 누르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야 했다. 일터와 가정이 혼재되면서 두 가지 일을 떠안아야 했던 여성들의 삶을 보여준다.

4. 대구의 특질 추출

대구 주요 산업은 ‘섬유’가 꼽힌다. 대구는 일제 강점기 때 이미 제사업을 주축으로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섬유도시였다. 제사업을 비롯한 섬유산업은 특히 여성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섬유 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이었고 실제로 수많은 여성들이 섬유 노동자로 일을 하거나 섬유 업계 관계자로 종사해왔다. 일제 강점기 제사업의 경우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90% 이상이었고 1990년대까지 여성 노동자는 섬유 노동자의 큰 비중을 차지해왔다.

하지만 그 많은 대구 여성의 이야기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여성들의 삶의 기록이란 정치사료중심의 극소수의 사례에 불과하거나 몇몇 인물의 이야기로 전해질 뿐이다. 섬유와 관련한 많은 책과 연보가 있지만 그 속에서 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높은 수치로만 남아 있을 따름이다. 수치 뒤에 섬유산업을 실질적으로 일구었던 여성 노동자의 역사는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대구 산업의 주요 근간이 되었던 섬유의 궤적을 되짚어 여성의 이야기를 찾아내 실제로 섬유 산업을 일구었지만 잊혀진 여성들의 역사를 들어보고, 이들의 삶을 재구성한 ‘대구, 섬유 그리고 여성’은 큰 의미를 지닌다.

김상태 구슬자는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오면서 김상태의 오빠들이 죽담기가 있던 직조공장에 다녔다. 식모살이를 해주면 방직공장에 넣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구방직에 들어가기 위해 18살이 되기까지 3년이나 아이를 봐줬지만 공장에 넣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침산동의 작은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실 푸는 비숙련 노동을 했지만, 곧 숙련노동자가 되었다. 아무도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혼자 어깨 너머로 터득해 기술자가 되었다.

의류와 포복 중심의 서문시장은 평양, 강경과 더불어 조선 3대시장의 하나였으며 한강 이남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정기시장이다. 대구가 섬유공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된 것도 서문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구는 이미 1910년부터 제사 공업이 발달하여 1920년에는 전국 최대의 제사 공업지로 부상했던 곳이다. 이 같은 제사공업의 발달로 1920년대 달성공원 주변에는 20여 개의 섬유공장이 생겨나고,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구의 기반 기능인 섬유공업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자연스럽게 의류와 포복이 유명해지면서 서문시장은 원단과

포목판매 시장으로 각광을 받게 된다.

‘대구 시장 여성’에 등장한 여계연 구술자는 서문시장 1지구에서 원단장사로 시작하여 지금은 천연염색옷을 판매하고 있다. 성주군 금수면의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경찰공무원의 남편을 만나 대구에서 50년 동안 장사를 했다. 80년대 시작한 서문시장 원단 장사로서의 삶은 대구 섬유공장의 흥망성쇠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던 시부모의 대를 이어 장사를 하고 있는 이경임 구술자는 “시집 와서 한참 지나도록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노점에서 건어물 장사를 하셨다”고 회상한다. 또 서문시장이 건어물 시장으로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구술하고 있다.

미군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 수입잡화상 곽호숙 구술자를 통해서 교동시장의 발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피란민 할머니들이 시장 와서 미제 물건을 팔고 군복을 팔고 해서 시작되게 된 교동시장의 원형은 지금까지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5. 사진 자료 아카이브

구술자들을 만나고 구술을 받는 작업과 함께 이들이 간직한 과거 사진을 수집하여 책에 수록하였다. 구술자 대부분 고령으로, 기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구술자의 경우 인생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사진을 이미 다 태워버리고 없는 경우가 몇몇 있었다.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서 사진을 언제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구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사진은 이들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된다.

엠마 프라이싱거 구술자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은 1960년대 보자기에 약을 담아 머리에 이고 가던 사진, 나환자가 죽으면 야산에 묻고 묘비를 쓴 사진, 간호사들의 옛날 복장 등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1936년생 전쌍봉 구술자도 풍부한 사진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1957년 마당에서 올린 혼례 사진, 의복, 마을 풍경 등 다채로운 사진을 책에 수록할 수 있었다.

Ⅲ. 향후 발전 계획

1. 시리즈물 발간으로 브랜드화

타 시도의 사례가 없는 ‘주제별 여성 구술’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일반 생애사 발간보다는 좀더 명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주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채로운 시리즈물로 발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디자인 면에서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첫 발간인 2014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한 판본과 디자인으로 책을 발간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본 재단의 대표 시리즈물로 자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키워드의 발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진행하다보면 다채로운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또 앞으로도 다양한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구 풍경에 대한 흥미로운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각들이 향후 이어져 하나의 커다란 그림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대구 여성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시리즈물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주제 선정은 타 시도와는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대구만의 특질을 좀더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구술자 발굴의 노력 강화

대구여성생애구술사의 특징 중 하나는 ‘발로 뛰는 구술자 발굴’에 있다. 기존 언론에 노출되거나 이미 알려진 사람보다는 새롭게 발굴하는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 즉 발로 뛰며 구술자를 발굴해내는 데에 차별화 지점이 있다. 5명의 구술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십 명의 예비 구술자 리스트를 작성했던 첫 해의 경험처럼 매년 구술자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식상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터전 한복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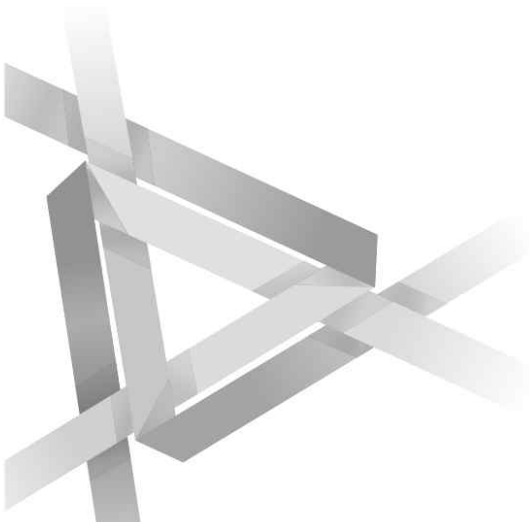
싱싱한 이야기를 건져내고 여성의 삶을 조명할 때 늘 새롭게 주목받을 수 있는 대구여성생애구술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현, 「한국 의료체계 내 여의사의 지위와 성차별」, 『여성학연구』, 제11권 제1호, 2001.12, 21-44쪽.
- 이나영, 「과정'으로서의 구술사, 긴장과 도전의 여정」,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2012, 181-218쪽.
- 이임하, 「출산에서의 여성전문직 조산사의 기능과 쇠퇴에 관한 연구」, 『구술사연구』 제6권 1호, 2015, 121-161쪽.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 시장 여성』, 2015.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 의료 여성』, 2016.
-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 섬유 그리고 여성』, 2014.
- 윤택림,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2010, 아르케 펴냄
- 정현백, 『여성사 다시 쓰기』, 2007, 당대 펴냄

전남 여성생애사 발간사업의 특징과 발전계획

이진순 (전남여성플라자 교육사업팀장)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전남 여성생애사 발간사업 의 특징과 발전계획




목 차



- 1 전남여성생애사
- 2 전남여성생애사 발굴·보급사업
- 3 가고싶은 섬 여성이야기 발굴·보급사업
- 4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여성이야기
- 5 향후 발전방향






1. 전남여성 생애사



1) 전남여성 생애사란?

전라남도에서 살았거나 살고있는 여성들 중
 맥락, 상황 속에서 문제를 극복하고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여성인물과 삶의 이야기를 발굴 · 보급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자원으로 활용



1. 전남여성 생애사



2) 주요 특징 : 생애사의 특징

- reflection, 삶의 주체자
- 삶의 주체자로서의 의미부여
- 자기생산성
- 과정으로서 구성된 삶
- 선택에 의한 자기 책임성
- 열린 미래, 자아실현, 삶의 만족감 중시

1. 전남여성 생애사



2) 주요 특징 : 생애사의 특징 + 전남

- 전라남도 정책 및 여성정책과의 연계성
- 전남여성의 대표성의 가치
- 스토리 위주로 구성(가독성, 흥미성 등)
- 지역대표성과 지역자원으로 활용가능성
- 미래에의 대표성

1. 전남여성생애사



3) 사업유형

문서 기록에
기반한 생애사



전남여성생애사

인터뷰를 통해서
구술로 구술자의
삶을 이해하는
구술생애사



가고싶은 섬 여성이야기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여성이야기





2. 전남여성생애사 발굴·보급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역사속에 항상 존재하였으나 기록되지 않은 성의 삶에 대해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인물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여성리더상 정립

목표

- 여성생애사 스토리 발굴 2건
- 홍보물 제작 및 전시 2건, 보도자료
- 홈페이지 여성인물 소개글
- 전남여성 DB 구축

추진체계



사업일정

과제시연계획서 수입	2016년 여성인물 홍보물 제작 및 전시	문헌조사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제시연계획서 작성	홍학자, 문준경 세뇌 제압 및 전시 보급자료 제작	문헌, 신문, 포털, 자료조사	2017년 인물선정 심의회
2017년 2월	2017년 3월	2017년 3월	2017년 4월
작가선정 및 자료조사	협약 2인	간담회 및 리뷰자료	최종보고 출판물인쇄, 홍보
간담회 및 자료조사	집필방향 설정 → 1인	간담회 운영 차분, 자료 보완 및 수정	책자 인쇄 홍보물 배포 보급자료 작성
2017년 5월	2017년 5월~8월	2017년 9월	2017년 10월



2. 전남여성생애사 발굴·보급사업

2) 사업결과 및 활용

전남여성생애사 책자 발굴 현황 : (2011 ~ 2016) 총 10명 발굴

번호	분야	지역	인물	책 제목	발행 연도	비고
1	사회공익운동	목포	윤학자	푸른바다의 수선화	2016	전남여성생애사 10
2	종교	신안	문준경	섬마을 성녀의 고무신 행진	2016	전남여성생애사 9
3	국악	강진	함금덕	가야금 산조의 명인 함동경월	2015	전남여성생애사 8
4	동학운동	장흥	이소사	갑오의 여인 이소사	2014	전남여성생애사 7
5	공예	나주	노진남	나주셋꿀나이, 노진남	2013	전남여성생애사 6
6	문학 여성운동	해남	고정희	짧은 삶, 긴 여백 시인 고정희	2013	전남여성생애사 5
7	독립운동	여수	윤형숙	여성, 기록되지 못한 반쪽역사	2012	전남여성생애사 4
8	독립운동	보성	김귀선	여성, 기록되지 못한 반쪽역사	2012	전남여성생애사 3
9	국악	진도	박옥진	전남여성인물사 1	2011	전남여성생애사 2
10	국악	진도	김대례	전남여성인물사 1	2011	전남여성생애사 1





2. 전남여성생애사 발굴·보급사업

2) 사업결과 및 활용

전남여성생애사 책자 발간형태



차 례 Contents

1. 고시촌, 작은 어촌마을에 있던 사랑의 별	04
2. 근대도시, 복음, 자스콘의 생애와 차기	10
3. 거사대왕 봉치호	22
4. 책방이 많았던 선안	28
5. 자스콘에서 통역사가 되었다	36
6. 현안면 부흥 속의 관영환	42
7. 선안면 상촌과 봉치호의 홀로서기	48
8. 한국고아원의 어머니, 윤학자	54
9. 대한민국 문화홍천을 빛다	62
10. 후손바다의 수선화	68
11. 최정환국인의 인내적 고향이길	74
12. 꽃피기 전에, 윤학자를 기억하는 사랑의 연보 / 참고자료	82
	90-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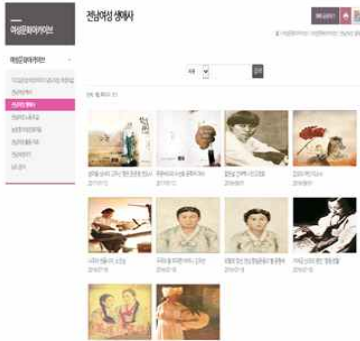
명실 공히 복도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아들의 집에도 인정받은 윤학자는 1965년 8.15 광복절에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훈장을 표창한다.
"여로, 나 어딘하든 꽃 한 개로? 이제 장민, 윤치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내가 된 거죠?"
일본인으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상을 타게 된 윤학자는 상상을 낡은의 사진 앞에 두고 처음으로 하소연했다. 아무리 힘들고 시련은 일이 있어도, 그의 이름 앞에 서는 단 한 번도 불평이나 후념에 본적 없는 강인한 아내라고 말했다. 그 힘겨운 세월 그만 의지해서 없었으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당시 윤학자의 혼양 수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에게는 처음 있는 일로, 특히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 일본 국적을



2. 전남여성생애사 발굴·보급사업

2) 사업결과 및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2. 전남여성생애사 발굴·보급사업

2) 사업결과 및 활용

DB 구축 및 소개글 작성



성명	성명	생년	사망	사진
	(본명, 예명)	월/일	년/월	
김희	본명 김희	1906	1992	
김희	본명 김희	1906	1992	
김희	본명 김희	1906	1992	



3. 가고싶은 섬 여성이야기 발굴·보급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선 6기 브랜드 시책인 전라남도 가고싶은 섬과 연계
- 여성의 입장에서 문화와 감성을 담고 지역주민의 삶, 사람, 자연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스토리발굴

목표

- 섬 여성이야기를 담은 "남도의 섬, 여성의 삶" 책자 발간
- 섬·여성의 특성과 전통반영 사진전 개최
- 현장기록을 담은 섬 사진 영상제작, 상영

추진체계



사업일정





2) 사업결과 및 활용

전남여성생애사 책자 발굴 현황 : (2015 ~ 2016) 총 8개 섬

연도	발굴 섬	참여자
2015	· 낭도, 연흥도, 가우도, 반월·박지도, 소안도, 관매도(6개섬)	자문위원 3명 현장조사 6명 글 작가 3명 사진 작가 2명
2016	· 보성 장도, 완도 생일도(2개섬)	자문위원 3명 글 작가 2명 사진 작가 1명

-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전남도 비교우위 자산인 섬 등 해양자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싶은 섬'으로 조성('16년, 전라남도).
- 섬 : 2,219개(전국의 65%), 해안선 : 6,743km(전국의 46%)
- 갯벌 : 1,037km²(전국의 42%), 바다면적 : 26,450km²(전국의 37%)



3. 가고싶은 섬 여성이야기 발굴·보급사업



2) 사업결과 및 활용

가고싶은 섬 책자 발간형태



생일도
생일도 여성들의 삶과 문화

다시 태어는 섬, 생일도
생일도는 어떤 곳일까, 이름이 주는 설명을 읽고 약간씩 당혹에서 비롯되고 25분쯤 달렸다. 택이칠 내리는 늦게 때문에 배우에 가져간 다도해의 섬들이 연이로 온 심부름 아들답고 싶어스러웠다. 또다시 생일도 정부가 편차로써 물어올라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선착장 배표소 지붕 위에 놓인 커다란 생일 세이그 조형물이었다. 아아, 방문객을 반기는 생일도 주민들의 환대가 잘 예로스러웠다.
생일도는 완도군도에 속하는 섬으로 처음에는 산일도, 산은도의 줄라다가 주민들의 분성이 작하고 어김어 것 태어난 야기라 갔다 하여 날 생일과 날 임명자를 끌어 생일도의 푸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다른 운래는 예로부터 횡한 바다에서 조난 시고의 예외를 행로가 실제 지름을 새로 잊고 새로 태어나라 는 뜻에서 생일도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다. 어쩌면, 이제 생일도는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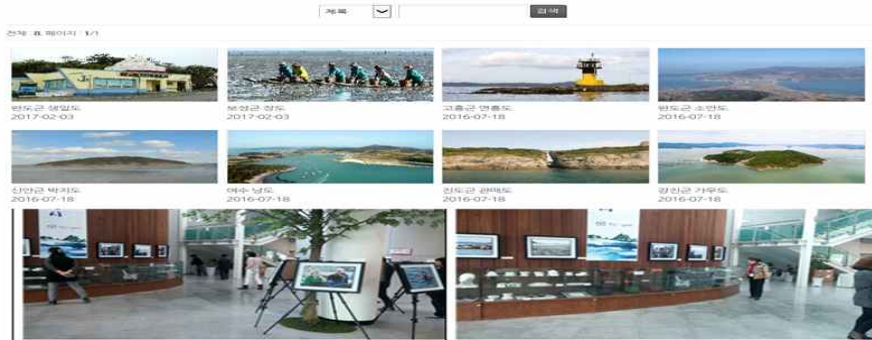
3. 가고싶은 섬 여성이야기 발굴·보급사업

2) 사업결과 및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사진전, 영상 포함)

가고싶은섬 여성이야기: 남도의섬, 여성의섬

홈 > 여성문화지원사업 > 여성문화지원사업 > 가고싶은섬 여성이야기 > 남도의섬, 여성의섬



4. 농촌형여성친화마을 여성이야기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 공동체 내에서 일자리, 돌봄, 경제활동의 공동참여가 이뤄지는 농촌형 여성친화마을을 발굴하고 여성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 스토리 발굴

목표

- 농촌형 여성친화마을을 발굴, 선정 및 스토리 텔링 2곳

추진체계



사업일정

업무흐름	원정	내용
문헌조사 및 전문가자문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강진군, 담양군 특성, 여성관련 농가와 마을공동체발전 유무, 여성농가의 의견 및 발전가능성 등 ▪ 방법: 방문 및 전화
현장조사	3월-4월	▪ 외부전문가 활용
스토리 제작 작성 1	4월-6월	▪ 강진군 현장조사 결과 정리 및 재구성, 김필
중간보고	6월	▪ 강진군 중간자문 및 결과보고
스토리 제작 작성 2	6월-7월	▪ 담양군 현장조사 결과정리 및 재구성, 김필
인쇄본 감수 및 수정	7월-8월	▪ 강진군, 담양군 인쇄본 제작 감수 및 수정
최종보고	9월	▪ 최종자문 및 결과보고
인쇄 및 홍보	10월	▪ 책 인쇄 및 홍보



4. 농촌형여성친화마을 여성이야기

2) 사업결과 및 활용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책자 발굴현황 : (2015 ~ 2016) 총 3개 마을

번호	지역	책 제목	발행 연도	비고
1	담양	어머니의 땀줄, 마을이 되다 삼지내 마을 여성들	2016	농촌형여성친화마을 3
2	강진	따로 또 같이 행복을 수 놓아가는 녹향원촌 여성들	2016	농촌형여성친화마을 2
3	순천	마을 안에서 그녀, 꿈을 꾸다. 덕동마을	2015	농촌형 여성친화마을 1

★ 농촌형 여성친화마을은 여성들이 주도로 여성의 필요와 경험을 반영한 안전·소득활동·돌봄, 문화 등의 행위를 마을 안에서 협력 증진하는 공동체로 정의됨. 특히 농촌에서는 여성주도로 이루어지는 기업형 농가, 마을기업, 영농조합, 협동조합 형태로 나타나며,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마을단위 공동체(연대와 돌봄, 안전과 문화 등의 활동 수행)를 형성하고 있음(전남여성플라자 정의, 2015년).



4. 농촌형여성친화마을 여성이야기



2) 사업결과 및 활용

전남여성생애사 책자 발간형태



차례 Contents

1 할머니는 딸	5
2 자연이 좋은 사람들	13
3 인문사형(인문사)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 녹향원촌 여성들 김사외 김성희 마을살이의 중심축으로서의 녹향원촌 김강숙씨	21
4 자신의 경험로 마을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성들	35
5 기업으로 강진원화를 이어가는 여성들 대농을 일군 진성(이영제) 씨 보고 배워, 그대로 대농을 일군 딸 귀암인 씨와 강진의 차용자를 지키는 다함안영, 오귀자씨	43
6 원주민이 된 귀촌인이 만들어가는 '녹향원촌' 보람이 되는 귀촌 내다, 당파자리를 무한히 확장한 이철스씨 '녹향원촌'의 배움을 수 있는 황대소, 원근교사 이희정씨 '녹향원촌'의 전통 원주민 '녹향원촌' 내내 김희, 김애 성공한 농성 강진인, '녹향원촌' 사무장으로 농촌서유환(한미산씨)	57



'녹향원촌'은 전남 강진군 강진면의 송월리, 월파리, 월남리, 영흥리에 속한 9개의 자연마을을 일컫는다. 성진면은 북쪽에서 진입할 때 제일 첫 번째 면, 즉 강진의 관문이다. 강진면은 농경지 577ha, 임야 850ha, 기타 278ha의 면적으로 374개 농가(141개 가구가)에서 총 515농가 1,16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5. 향후 발전방향



1) 새로운 분야 여성인물 발굴

2) 홍보 다양화, 확대

3)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 기록 및 관리의 체계화

5) 지역관광 자원과 연계



감사합니다!

강원해녀를 만나다

김영희 (강원도민일보 기자)



강원해녀를 만나다

김영희(강원도민일보 지역사회팀)

△강원해녀를 취재하게 된 계기와 목적

문화재청은 지난 3월초 “독특한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지정예고기간을 거쳐 5월 1일 전국의 ‘해녀’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6개 시군이 동해와 맞닿아있다. 그 중 나잠어업 종사자도 2014년 통계기준 634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잠어업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해해녀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무관심 탓인지 해녀라고 말하면 제주도만 떠올린다. 제주=해녀라는 공식이 성립되게 된 데에는 일찍부터 제주도가 이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보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실로 제주해녀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동해에도 해녀들이 존재한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한명의 해녀가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정도로 별이가 관촬았다. 그러나 강원도가 노령화 되듯 그들 해녀들도 노령화에 접어들었다. 환경오염 등에 따른 수산 자원 감소, 계승 보전할 청년들의 부재 등 해녀의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에 계승할 사람조차 찾기 힘든 강원 해녀의 2017 자체를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강원 동해안 해녀를 직접 찾아가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담아 ‘동해해녀’들의 사회적 문화적 재조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도하고 있다. 또한 여성 어업인들이 차지하는 역할 변화와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사라질지도 모르는 동해해녀 기록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직접 기록해 언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했다.

나아가 국가무형문화재에 걸맞은 보전 계승 방안을 모색해보고, 체계적인 콘텐츠화를 통해 또 하나의 강원대표 브랜드로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강원 해녀 현황

해녀란 몸에 아무런 장치 없이 맨몸으로 수심 10m 이내의 바다를 잠수해서 전복·소라·미역·성게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여자를 말한다. 현재 수산계통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나잠(裸潛)업이다. 제주에서는 이들을 ‘잠녀(潛女)’ 혹은 ‘잠수(潛嫂)’라 부르기도 한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3분의 1에 해당되는 6개 시군이 동해와 맞닿아 있다. 수산업 종사자가 다수인 것은 어쩌면 지리적으로 당연하다. 신고된 나잠어업 종사자도 2016년 통계기준 616명이다. 그중 해녀라고 불리는 여성 나잠어업인은 47개 어촌계 327명 신고돼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릉 39명, 동해 8명, 속초 14명, 삼척 59명, 고성 203명, 양양 4명이다.

>>>강원 시군별 해녀 현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강릉	52	59	46	49	39
동해	11	5	9	8	8
속초	11	11	12	16	14
삼척	79	87	74	75	59
고성	200	177	173	164	203
양양	11	13	14	15	4
합	364	352	328	327	327

△만나본 강원해녀

이번 기획취재를 위해 고성과 강릉, 삼척의 강원해녀들을 만났다. 경제활동에 한창인 40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 60~7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40~50년간 거친 바다에서 자신이 보유한 물질 기술 하나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강인한 여성들이었다. 해녀를 한평생 업으로 살아온 이들은 70,80년대 한 가정을 먹여살릴 정도로 별이가 괜찮았으며, 그 수도 지금의 서너배가 됐다고 한다. 또한 만난 해녀들이 하나같이 내 기술만 있고 건강만 허락한다면 정년이 없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느 시골과 마찬가지로 현재 어촌과 해녀들의 삶은 쓸쓸해보였다. 무거운 낚을 허리에 차다보니 생긴 허리병과 압력차이로 생긴 귓병으로 인한 청력저하, 바다 위에서 일하는 까닭에 제때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생긴 위장병 등 각종 질병들이 노령의 해녀들을 쓸쓸하게 만들고 있었다. 또한 물질하는 사람에 대해 가련하게, 천박하게, 마냥 신기하게 여기는 부정적인 인식도 그녀들을 쓸쓸함에 묻히게 하는 것 같았다.

강원도 인구가 노령화 되듯 강원해녀들 중 70대 이상이 42%(2017.8 기준)로 노령화에 접어들었다. 고령의 해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하지만 신규 해녀 가입자는 전무한 상황으로 해녀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어 이들에 대한 기록이 더욱 시급하다.

덧붙여 함께 기록돼야 할 부분도 있다. 강원해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부장적인 문화가 여전히 팽배한 어촌사회에서 이들은 나름의 여성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절대 홀로 물질하러 가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여성들끼리 협업하며 마을을 이끄는 하나의 공동체, 혹은 주체가 돼 있었다. 이 부분은 전통적 성역할과 권력인식에 대해 활발히 고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해녀 지원·문화전승 활발

강원해녀에 관한 취재는 어쩔 수 없이 제주해녀로 이어지게 됐다. 해녀의 수가 우선 가장 많고, 일찍부터 해녀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자각한 까닭에 방대한 양의 자료 보유와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로 고령해녀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현직해녀 중 80세 이상에 대해 물질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월 20만원, 70~79세는 월 1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른 체력저하와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함이다. 제주도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신규 해녀가임을 독려하는 방안으로 3년간 월 30만~50만원씩을 지원하고, 어촌계 가입비 지원 확대도 도입했다.

또한 강원해녀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작업과 가장 밀접한 잠수복 100% 지원책이다. 옛날과 다른 바다 환경과 그에 따른 자원감소, 어촌계와의 분배 비율, 물질하러 나갈 때마다 지불되는 배삯 등으로 소득이 많지 않은데, 한 벌에 70만원 가량씩 하는 잠수복의 100% 지원은 강원해녀들로서는 정부와 지자체에 우선 바라는 정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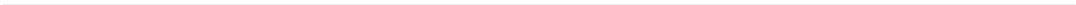
제주도는 해녀들의 생업으로써의 지원과 문화 전승 보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다. 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 해녀박물관이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 지자체에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해녀박물관은 제주해녀의 생애를 집대성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연구, 보존, 전시하는 기능과 동시에 해녀문화를 교육, 전승하는 역할을 한다.

강원도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해녀의 생애’ 주제의 전시실에서 수십개의 모니터를 통해 해녀들이 직접 전하는 그녀들의 이야기다. 첫 물질·출가물질 경험담과 가족이야기, 작업모습 등의 감상이 가능하다. 담담하게 들려주는 거친 바다에서 위험했던 순간과 바위를 헤집고 다니던 뭉툭한 손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야기가 쉽없이 나오는 모니터는 자연스레 방문객들에게 해녀의 생활상을 알게 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기록후 보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줬다.



MEMO





MEMO



강원여성생활사 및 여성구술생애사 발굴·발간 방안 라운드테이블

발 행 인: 서영주

발 행 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주소/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25(석사동111-6)

전화/(033) 248-6300 (대)

팩스/(033) 248-6305 (대)

<http://gwfri.gwd.go.kr>
